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선택의 시간 [창세기 21:8-21]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11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15 가죽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16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 하니 17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겉보기만 보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어떤 문화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니다. 이삭은 유아였습니다. 3살 정도 나이였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축하파티가 열렸습니다. 이스마엘은 17-18살 정도 되었지만 더 이상 후계자가 반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조롱한 것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창세기 21:10).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약속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2 대저 주의 원수가 환화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3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4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5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6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7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8 앗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시편 83:2-8).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라가 말한 대로 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언약의 자손들 간에 증오의 씨를 심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 4:29). 삶의 가장 세세한 일들로부터 가장 넓은 의미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강하게 써내려갑니다. 믿음으로 난 여자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오직 유일한 선택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약속의 축복들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약속에 속해있는지 확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이나 행위를 통한 구원은 믿을 통한 구원과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노예의 씨앗은 자유의 씨앗과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믿음 없는 예수살렘, 현재의 믿음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삭은 천국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합니다. 싸움은 오늘날 우리의 삶, 모든 사회와 문에서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땅에 속한 것들의 여전히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것을 가리켜 약속의 노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이런 것들은 엄격한 율법의 약속의 노예, 순종불능의 노예 그리고 도달할 수 없는 자기 의의 노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에 얽매어 살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자유의 자녀들을 위해 다른 운명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운명은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주시고 삶을 주시고 또한 매일 매일의 삶에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종을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을 때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막에 떠돌고 가진 물도 바닥이 났습니다. 하갈은 기구한 삶의 운명에 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물이 제공되었습니다. 삶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복주겠다. 내가 그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45).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9:1-9절에 창세기 21:12말씀을 인용했습니다. *6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9:6). 바울이 그 방법에 대해 설파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자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속한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 육체적으론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의 탄생을 영적인 탄생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종국엔 두 왕국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쪽 혹은 저 쪽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자녀이던지 아니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브라함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삭이던지 이스마엘이던지 말입니다. 둘 다 선택할 순 없었습니다. 약속 아니면 육체이던지 둘 다 선택할 순 없습니다. 자유의 언약이던지 노예의 언약이던지 둘 다 선택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음 장의 장면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에게 남은 아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희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좁게 설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분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전적인 희생을 통해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의 어린양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 해주셨습니다. 언약의 자녀로서 말입니다.